금주의 법구-〈법구경〉
불행은 자신의 입에서 시작된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5월 5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53호 2017년 6월 28일 수요일

사찰 중심된 聖寶 연구·전시 활성화 '눈길'

화엄사·운문사·송광사·옥천사
소장·환수 성보 연구·전시 개최
일반인과의 소통 방안 찾고
성보 가치 알리는 효과 '기대'

"건축 아닌 사찰 콘텐츠 개발로
스님들 佛事 인식 전환되는 중"
일회성 아닌 장기적 연구 필요

사찰을 중심으로 소장 성보 문화재의 가치와 보존·활용을 연구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사찰 소장 문화재에 대한 연구와 보존·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곳은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와 청도 운문사(주지 진광)이다. 화엄사와 운문사는 6월 13일과 10일 각각 학술 세미나를 열고 사찰 소장 성보 문화재 연구와 활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세미나는 학계가 아닌 사찰이 주도해 자신의 소장 성보 문화재의 가치를 연구·조명하고 있다는 데 눈길을 끌었다.

조계종 제21교구본사 송광사(주지 진화)와 고성 옥천사(주지 원각)는 도난됐다가 환지본처한 성보문화재를 적극 연구·전시하는 행사를 잇달아 마련했다.

송광사는 지난해 12월 도난당한지 40여 년만에 환수한 오불도(五佛圖)를 6월 24일부터 특별전을 통해 일반에 공개했다. 23일에는 오불도를 조명하는 학술대회도 개최했다.

옥천사 역시 환수한 나한상 2점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특별전을 성보박물관 전시실서 개최하며, 7월 4일에는 '옥천사 나한상의 제작시기와 작가 추론'을 주제로 문화 강좌도 열 예정이다.

특히 옥천사는 소장 성보문화재에 대한 연구를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원장 석문, 이하 동불연)와 협약을 맺고 지난해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나한상 환수도 동불연과의 학술 세미나를 통해 공개된 사진이 결정적 증거가 돼 이뤄졌다.

논산 관촉사, 예산 향천사, 속초 보광사 등도 소장 성보문화재와 사찰 역사를 동불연과 공동 연구를 통해 조명하고 있다. 동불연은 이들 사찰에 대한 사지·문헌집·연구집을 시리즈로 발간 중이다.

이들 사찰이 보이는 행보는 단순한 문화재 연구를 넘어 사찰 문화 콘텐츠의 외연을 확장하는 초석이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화엄사의 경우 건축불사는 어느 정도 완료됐다. 이제는 어떻게 콘텐츠를 채워나가야 하는지가 관건"이라며 "문화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국민에 돌려줄지를 고민하려 한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사찰이 저의 문화재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지 않은 사찰들도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고 채울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그런 고민들이 인식 전환으로 이어지며, 다양한 연구들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은 "그간 운문사는 변변한 박물관이 없어 성보문화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성보문화재를 잘 정리·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일반인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사찰이 중심된 성보문화재 연구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1회성 행사가 아닌 장기적 연구 사업으로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

오세덕 경주대 교수는 "국보와 보물 등 중요문화재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이다. 하지만 사찰에 산재한 문화재들은 해당 사찰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다"며 "사찰 소장 문화재를 스스로 연구·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문화재 연구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작업이다. 이 같은 연구들은 불교문화재 연구를 발전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최선일 동불연 부소장은 "전국 1000여 곳의 전통사찰 중 소장 성보문화재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30여 곳밖에 안 된다. 최근 사찰들이 중심으로 진행하는 연구 사업들은 긍정적"이라며 "이 같은 연구 사업은 1회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 문헌집·사지 등 최소 기초 자료를 만드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성민 기자



순국선열 왕생극락을 기원하며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8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제17회 호국영령 천도법회를 진행했다. 법회서는 추모행사와 함께 1600여 대중이 함께 한국전쟁 의미를 되새기는 주먹밥 시식 등을 진행했다. 사진은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첫 열 왼쪽 첫 번째)과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두번째 열 오른쪽 첫 번째)을 비롯한 대표자들이 순국선열 위패를 들고 영가 천도를 발원하는 모습. 글=노덕현 기자·사진제공=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신행불교대학 '관리감독' 과제 떠올라

조계종 포교원, 6월 21일 신행불교대학 16곳 선정

신도교육 대중화 방침에 도입
불교대학 비해 인가조건 완화
사찰 개별교육 감독 필요성↑

조계종 신규 신도교육기관인 신행불교대학에 16곳이 선정됐다. 신행불교대학은 포교원의 신도교육 대중화 방침에 따라 도입된 기관으로 기존 불교대학과 달리 인가절차 및 교육과정이 대폭 완화됐다. 이에 향후 신도불교대학 교육 관리가 과제로 떠올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6월 21일 포교원 회의에서 신행불교대학을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지역에 천축사, 백련사, 석가사, 회룡사, 구현선원, 지선사, 연등밝은절 등 7곳이, 부산·영남지역에는 광명사, 금강사, 무룡사, 송림사, 장금선원, 정각사 등 6곳, 광주·호남지역에 연국사 1곳, 강원지역에는 성불원과 봉덕사 등 2곳이 선정됐다.

신행불교대학은 벽지 사찰에서도 인터넷 동영상 강의 등을 통해 사찰 신도들을 대상으로 신도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사찰 환경을 배려해 학생정원이나 교육시설 기준 등 기존 불교대학의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생략했다. 졸업까지의 교육이수 시간은 1~2년간 96시간이 진행되는 불교대학에 비해 비교적 짧은 72시간이며 강사진 구성도 불교대학의 4명에서 조계종 스님 1명으로 완화됐다. 수강 자격이 해당 사찰 재적 신도에게만 주어지지만 불교대학 정원기준이 20명인 반면 신행불교대학 정원은 제한이 없다.

반면 혜택은 풍부하다. 신행불교대학은 '신행불교대학 지정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졸업자 혜택도 불교대학과 동일하다. 졸업자에게는 '부동' 신도품계가 품서되며 포교사 고시 응시자격도 부여된다.

여기에 사찰 환경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포교원에서 동영상과 자료로 배포하는 '신행혁신과 불자상' '부처님의 생애' '불교개론'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금강경의 이해' '불교문화·역사' '불교신행(수행)' '봉사' 등 과목은 사찰 역량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여기에 조계종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동영상 강의 방식과 사찰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방식도 선택 가능하다.

문제는 신행불교대학의 교과목 신청 내역을 보면 인터넷 동영상 강의 방식을 선택한 사찰은 3곳으로 대부분 사찰 개별교육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조계종 디지털 대학에서 제공하는 강의 동영상은 사찰ID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속해 활용하기에 포교원에서 접속 및 활용에 대한 감독이 용이하다. 최소한 동영상 강의 의무시행 등 요건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강원지역 불교대학 학장 스님은 "기존 불교대학에 비해 인가조건부터 대폭 완화된 상태에서 대학의 개별적인 교육에 대한 관리도 부실하면 자칫 보여주기식 교육, 조계종 인가 명칭만을 위한 교육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계종 포교원 교화팀 관계자는 "신행불교대학은 소규모 사찰이 종단 신도교육을 경험하도록 한 것으로 신도교육 대중화를 위해 사찰 참여를 이끄는 방편으로 도입됐다. 2018년 8월까지 운영되는 동안 개선사항을 받아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신행불교대학이 향후 정식인가 불교대학까지 될 수 있도록 유도와 지원을 함께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원로의장 종하 스님 선출

6월 22일 만장일치로
임기 12월 10일까지



조계종 신임 원로의장에 불교방송 이사장 종하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종 원로회의는 6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제54차 회의를 열고, 원로의장에 종하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번 원로의장 선출은 전임 원로의장 밀운 스님의 원로의원 임기 만료에 따른 보궐로, 임기는 잔여임기인 오는 12월 10일까지다. 원로회의는 이외에 공석인 부의장에 암도 스님을 선출했다.

회의 직후 원로의장단은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에게 "사부대중을 위한 종무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원로의장 종하 스님은 기자들과 만나 "의장단이 선출됐으니 우리는 초지일관 종단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새 의장단은 전임 의장단과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종단 특유의 종지와 관습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천명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회의서는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의 원로의원 선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원로의장 종하 스님은 고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9년 수계했다. 총무원 총무부장 및 부원장, 중앙종회의장, 개혁회의 부의장 등을 역임하고, 2009년 원로의원으로 선출됐다. 2011년 해인사서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부의장 암도 스님은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5년 수계했다. 백양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교무부장 및 총무부장, 중앙승가대 교수 등을 역임하고, 2011년 원로의원으로 선출됐다. 2011년 해인사서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윤호섭 기자

사 령

명) 편집국 취재부
부산주재기자 하 성 미
2017년 6월 1일 부
이상 1명

명) 편집국 취재부 수습기자
박 진 형
이 지 선
2017년 6월 12일 부
이상 2명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94권째 서적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서 각권과 각품마다 자문자답의 결문으로 선미(禪味)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화엄경 81권 중 15권 출간

출간 불사

모연문
전자책 5권 무료 다운로드
전자책 1, 2, 3, 4, 5권을 무료로 공개하였으니 읽어 보시고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전자책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zenparadise.com / 불사문의 : 010-4520-7963〉

바로보인 유가귀감
휴정 서산대사께서 밝혀놓은 유교의 뜻
유가귀감은 서산대사가 간추려놓은 구절로서 간결하지만 심오하기 그지없다. 간략한 구절 속에서 유교 사상을 미루어 볼 수 있게 한 서산대사의 박학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신간

바로보인 도가귀감



휴정 서산대사께서 밝혀놓은 도교의 뜻
도가귀감은, 일물(一物, 온통인 마음)을 밝혀서 회복함으로써, 나고 죽음을 비롯하여 모든 아픔과 고를 여의어, 뜻과 같이 누려서 살게 하고자 한 도교의 뜻을, 휴정 서산대사께서 밝혀놓은 책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은 부록으로 도덕경의 중대한 대목을 더하고, 도가귀감과 도덕경의 대목대목마다 결문(決文)하여, 깊은 내용을 쉽게 수용하고 음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031-534-3373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